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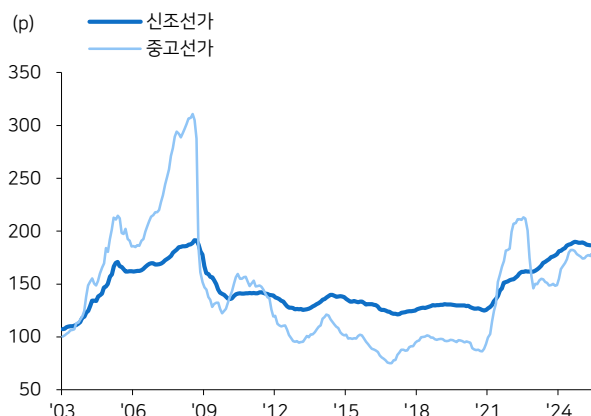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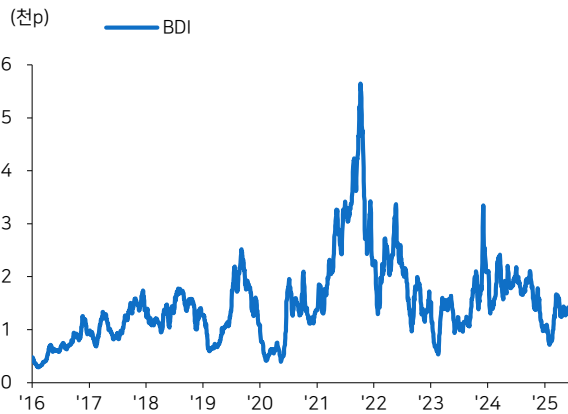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5.0달러(-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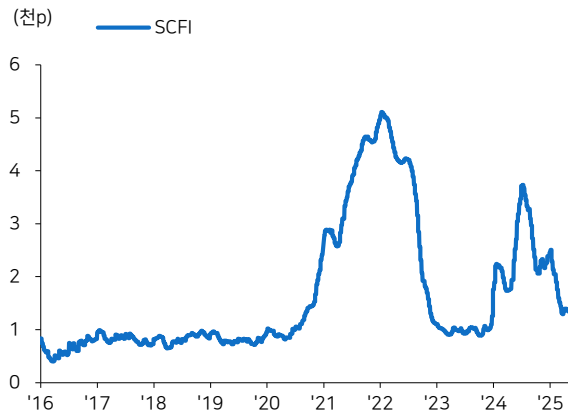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89.0p(+5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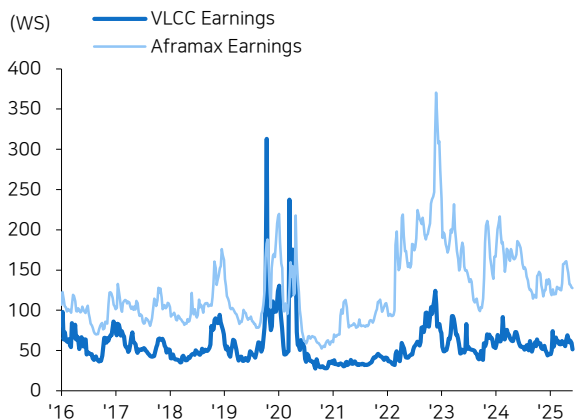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072.7p(+486.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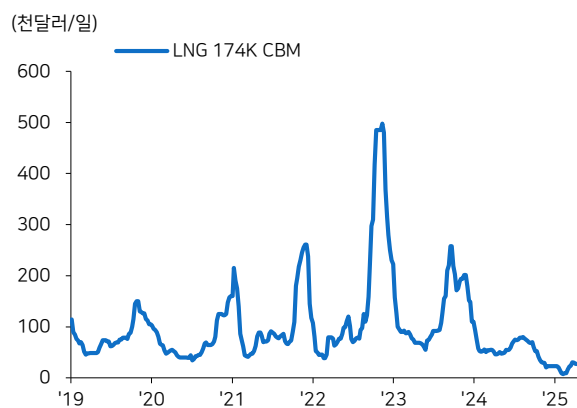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1.4WS(-7.8p WoW)



LNG Spot 운임

27.5천달러(-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Hyundai and ZeroNorth form tech alliance to boost vessel efficiency

HD현대의 자회사 아비커스와 덴마크의 해운기술기업 제로노스(ZeroNorth)가 자율운항 기술과 최적화 플랫폼을 결합해 선박의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함. 양사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속도·항로 자동 조정과 스마트 충돌 회피 기능을 통해 해운업의 자율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이번 협약은 노르웨이 노르쉬핑 행사에서 체결되었으며, 이후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 (Tradewinds)(<https://buly.kr/4FsYKG3>)

MOL to fit fuel cell to LNG newbuilding to cut emissions in pilot application

일본 선사 미쓰이 OSK 라인(Mitsui OSK Lines, MOL)은 삼성중공업과 함께, LNG 운반선에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보조 발전기로 탑재하는 신조선 설계를 개발함. 이 설계는 노르웨이 노르쉬핑 행사 기간 중 로이드선급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받았으며, SOFC는 온실가스 및 유해 배출물을 줄일 수 있어 탈탄소화에 기여한다고 보도됨. 선박은 2027년 인도될 예정이며, 양사는 2022년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2027년부터 장비 검증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Tradewinds)(<https://buly.kr/FAdX8rT>)

Can VLCC owners put up a fight as charterers drive down rates still further?

2분기 반등세가 꺾이며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스팟 운임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중동 걸프지역의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클락슨에 따르면, 선주들이 저가 운임 수용을 꺼리는 가운데 아시아행 물량 감소와 유럽 우회 수송 증가가 시장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음. 향후 VLCC 시장은 OPEC 생산량, 제재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 변수에 따라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https://buly.kr/3CO0anc>)

HD현대중공업, UIPA와 공동으로 '울산 태화호' 성능 개선

HD현대중공업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국내 최초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인 '울산 태화호'에 탑재된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함. 이번 연구는 알고리즘 고도화와 실증 강화를 통해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 사각지대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 개선된 시스템은 향후 HD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울산은 스마트 조선 기술 실증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https://buly.kr/2UiyWHK>)

KR-HD현대미포-HD한국조선해양 액화가스운반선 화물탱크 설계 협약

KR(한국선급)은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구조 건전성 평가(ECA)를 활용한 액화가스운반선 Type-C 탱크 설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세 기관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파괴역학 기반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적용해, 탱크의 구조 안전성과 설계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HD현대미포는 구조강도 분석, HD한국조선해양은 설계 및 평가를 담당하고, KR은 안전성 검토와 개념승인(AIP)을 수행할 예정임. (머니투데이)(<https://buly.kr/1REQdPW>)

한화오션,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박차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노르쉬핑 2025에서 한국선급(KR), 노르웨이선급(DNV)과 총 3건의 친환경 선박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함. KR과는 15만CBM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 및 LNG선 선수 거주구 배치 개선에 협력하고, DNV와는 액티브 연료탱크의 증기압 상향 기술을 공동 개발해 콜드 아이어링 최적화를 추진함.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모형도 함께 공개하며 친환경 기술 상용화 과정을 진행중임. (연합뉴스)(<https://buly.kr/BeKNWqj>)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